‘스마트 경로당’ 구축 본격화

임실군, 지난해 5개소 화상회의·IOT기반 화재감지기·이상음원 감지장치 시범 도입

임실군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43.7%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대면 중심의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정보접근성과 사회적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디지털 기반 복지 환경 조성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임실군은 지난해 관내 경로당 5개소에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사물인터넷)기반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 2개소에는 이상음원 감지장치를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비명, 고성등 12종의 이상 음원을 감지해 통합관제센터로 즉시 전송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는 3월말까지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지간 영상통신 기반으로 구축되는 스마트스튜디오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건강·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 지역의 경우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실시간 건강체조, 노래교실,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어르신 참여율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임실군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어르신 간 교류 활성화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추가 선정해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와 IOT기반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소통, 학습, 건강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갖춘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맞춤형 학습지원 나선다

만인재 플랫폼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원 만인재 플랫폼 온라인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교육비 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수도권 및 주요 명문대 학생과 지역 학생을 1:1로 매칭하는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 이를 통해 학습 코칭, 진로 상담, 학습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며,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 경쟁력이 검증된 유명 온라인 학원의 강의 수강권을 지원한다. 지역 학생들도 대도시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해, 교과 학습은 물론 수능 대비와 심화 학습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AI 분석을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와 문제 풀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2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2명의 학생이 최종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신청 학생들은 3월부터 개별 학습 상담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용, 이번 학습지원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 참여 부스 판매자 모집

27일까지 접수… 4월 30일~5월 6일 ‘제96회 춘향제’ 연계 월궁광장 일원서 진행

남원시는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에 참여할 부스 판매자를 모집한다.

이번 축제는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월궁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남원시는 관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선보여 방문객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남원의 대표 특산물이나 차별화된 상품을 보유한 농가나 단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son93@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최종 입점 업체는 품목의 적정성, 상품성,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축제 기간 판매 부스를 제공받아 자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고, 남원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와의 직거래 접점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농촌진흥팀(063-620-8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역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에 참여할 부스 판매자를 모집한다.

남원시 농촌진흥과 최정인 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농가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개최

순창군이 초·중·고·대 및 실업팀을 아우르는 전국 규모의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 일원에서 전국 단위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14년 연속 순창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순창군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회 기간 동안 약 1,2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순창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방문 인원은 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소상공인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신속집행 점검회의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임실군은 지난 19일부터 2일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선제적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현숙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5억원 이상 158개의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부군수는 토지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과 시설사업은 기본·실시설계부터 공정별 일정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순창군이 2026년 사회조사 실시를 앞두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순창군 사회조사’ 수행을 위한 것으로, 총 20명의 조사 인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조사관리자 2명과 조사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군민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4월 6일 사전 조사 교육을 시작으로 준비조사와 본조사가 순차적인 조사 일정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 있게 조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며, 통계조사 경험자나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관련 증빙 제출 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평가통계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도시민 1차 귀농 귀촌 상담 교육 나서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남원시 도시민 상담·교육(1차)’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열려,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총 25명이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40대 청년층도 48%에 달해 남원시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귀농·귀촌 희망지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기초 상담, 지원 정책 안내, 멘토 특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특히 남원시 농촌진흥과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정책 신뢰도를 높였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1:1 맞춤형 멘토링 상담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어딜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